

신품종 만감류 소비자 테스트를 통한 시장진입 방안 도출

고정순, 강태완, 임상현, 양원석, 양철준, 송정흡, 강중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e-mail: kojeongsoon@korea.kr

Market Entry Strategy through Consumer Test of New Citrus Cultivar

Jeong-soon Ko, Tae-Wan Kang, Sang-Hyeon Lim, Won-Seok Yang, Chul-Jun Yang,
Jeung-Heub Song, Jong-Hoon Ka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농가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기관에서 신품종·신기술 적용 농식품의 개발·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의 수요가 체계적으로 조사·반영되지 않아 시장성 확보 및 시장진입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신품종·신기술 적용 농식품에 대한 시장테스트를 통해 객관적인 품질평가는 물론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의 개선, 상품화·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성공적인 시장진입 및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만감류 ‘가을향, 우리향’의 원활한 시장진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50명)을 대상으로 만감류 구입 행동을 파악하고 신품종에 대한 외관·식미평가, 개선사항 및 마케팅 방향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 실시하였다. 신품종에 대한 소비자 외관·식미평가는 요인별 리커트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신품종 만감류 ‘가을향’과 ‘우리향’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으며 연내 수확하는 ‘황금향’과 견줄 수 있는 품종육성을 목표로 2011년부터 ‘황금향’과 ‘레드향’을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으로 ‘가을향’은 2021년 품종보호등록, ‘우리향’은 2022년 품종보호출원되었다. ‘가을향’은 과실 무게 190g 내외, 당도 13.4°Bx, 산함량 0.7%정도이며, ‘우리향’은 과실 무게 220g 내외, 당도 13.6°Bx, 산함량 0.8%정도로 두 품종 모두 수확기는 11월 하순이며 감산(減酸)이 빠르며 ‘황금향’에 비해 껍질벗기기가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의 만감류 구입 행동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들은 만감류 구입 시 당도(단맛), 맛, 가격, 신선도, 외관, 크기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다.

신품종 만감류에 대한 요인별 평가 결과, ‘가을향’은 색상, 모양, 과즙, 향, 당도(단맛), 맛, 식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크기, 당산비율, 박피성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도가 낮았다. ‘우리향’은 색상, 모양, 과즙, 맛, 당도(단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크기, 박피성, 당산비율, 향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두 품종에 대한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다른 만감류에 비해 크기가 작고, 높은 당도(단맛)에 비해 신맛이 부족하여 새콤달콤함이 부족하고 껍질이 두꺼운 점 등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구입 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당도(단맛), 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상품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들의 ‘가을향’, ‘우리향’에 대한 구매 의향 역시 각각 78.0%, 64.0%로 높았다.

신품종 만감류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높은 당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배·관리측면의 개선은 물론 품종특성에 대한 정보제공, 판매 용도에 맞는 포장방법·가격대 설정, 시식·할인행사의 적극적인 활용, 홈쇼핑·온라인 판매를 통한 소비자들의 반응 모니터링 등 신품종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다양한 판촉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 064-760-7332, F. 064-760-7399 kojeongsoon@korea.kr

§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번호: RS-2020-RD009133)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